

조사보고서

2023-3

2023년 3/4분기

기업경기전망조사 분석결과

2023. 7



I. 조사의 개요

1. 조사목적

- ◆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조사·분석하여 역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, 정부 및 시·도 지자체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있음.

2. 조사기간, 조사방법

- ◆ 2023년 2/4분기(4, 5, 6월) : 실적기간
- ◆ 2023년 3/4분기(7, 8, 9월) : 전망기간
- ◆ 조사기간 : 2023. 6. 19. ~ 2022. 6. 30. (휴일제외 10일)
- ◆ 조사방법 : 설문지 조사

3. 조사대상

- ◆ 여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의 제조업체 186개사
- ◆ 응답개수 : 68개 (설문지 회수율 : 36.6%)

4. 조사내용

- ◆ 전반적인 체감경기(경기실적 및 전망)
- ◆ 경기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책 상황 등

5. 집계·분석

- ◆ 회수된 조사표를 각 항목별로 집계·처리

6. 기업경기 실사지수(BSI)의 작성방법

- ◆ 경기조사 및 항목별 평가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간의 실적과 예측을 각각 전 분기 및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호전(상승, 증가), 악화(하락, 감소)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하였음.

기업 경기 실사지수(BSI)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작성하였음.

$$\text{기업경기실사지수(BSI)} = \frac{\text{증가(+)}\text{표시업체 수} - \text{감소(-)}\text{표시업체 수}}{\text{총 유효 응답 업체 수}} \times 100 + 100$$

※ BSI = Business Survey Index (0 ≤ BSI ≤ 200)

- ◆ 따라서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(상승, 증가)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(하락, 감소)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나타냄.

II. 2023년 3/4분기 기업경기 전망

1. 종합전망

가. 개황

- ◆ 여수지역에 소재한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(설문지 회수 : 68개, 회수율 : 36.6%)으로 2023년도 3/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,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는 ‘83.8’로 조사되었음.
- ◆ 이중, 석유화학 연관업종(n=37개)만을 대상으로 한 경기전망지수(BSI)는 ‘75.7’임

나. 항목별 경기전망 지수

【종합 (N =68)】

구 분 항 목	전체	
	2023년 2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3년 3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체감 경기	82.4	83.8
매출액	80.9	83.8
영업이익	76.5	73.5
설비투자	82.4	80.9
공급망안정성	91.2	94.1
공장가동여건	95.6	89.7

【석유화학 연관업종(N=37)】

구 분 항 목	전체	
	2023년 2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3년 3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체감 경기	73.0	75.7
매 출 액	73.0	81.1
영업이익	70.3	73.0
설비투자	86.5	78.4
공급망안정성	91.9	86.5
공장가동여건	86.5	78.4

【일반업종(N=31)】

구 분 항 목	전체	
	2023년 2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3년 3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체감 경기	93.5	93.5
매 출 액	90.3	87.1
영업이익	83.9	74.2
설비투자	77.4	83.9
공급망안정성	90.3	103.2
공장가동여건	106.5	103.2

2. 설문 결과 분석

- ◆ 2023년 3/4분기의 여수지역 경기전망지수(BSI, n=68)는 ‘83.8’로 조사되었다. 응답 개수 : 68개 (설문지 회수율 : 36.6%)
- ◆ 이는 기업경기 체감지수 기준 값(前분기 대비 다음분기의 기업경기 체감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기준 값)인 100보다 작은 값으로 “부정적”인 결과다.
- ◆ 2023년 3/4분기 체감경기는 지난 2022년 3/4분기를 기점으로 회복중이던 경기전망지수가 하락세로 전환된 결과를 나타냈다.
 - 89.4(2019년 3분기)→ 70.6(2019년 4분기)→ 94.1(2020년 1분기)→ 73.2(2020년 2분기)→ 58.0(2020년 3분기)→ 44.1(2020년 4분기)→ 65.2(2021년 1분기)→ 91.5(2021년 2분기)→ 83.8(2021년 3분기)→ 89.3(2021년 4분기)→ 88.4(2022년 1분기)→ 97.1(2022년 2분기)→ 62.3(2022년 3분기)→ 73.8(2022년 4분기)→ 89.4(2023년 1분기)→ 102.9(2023년 2분기)→ 83.8(2023년 3분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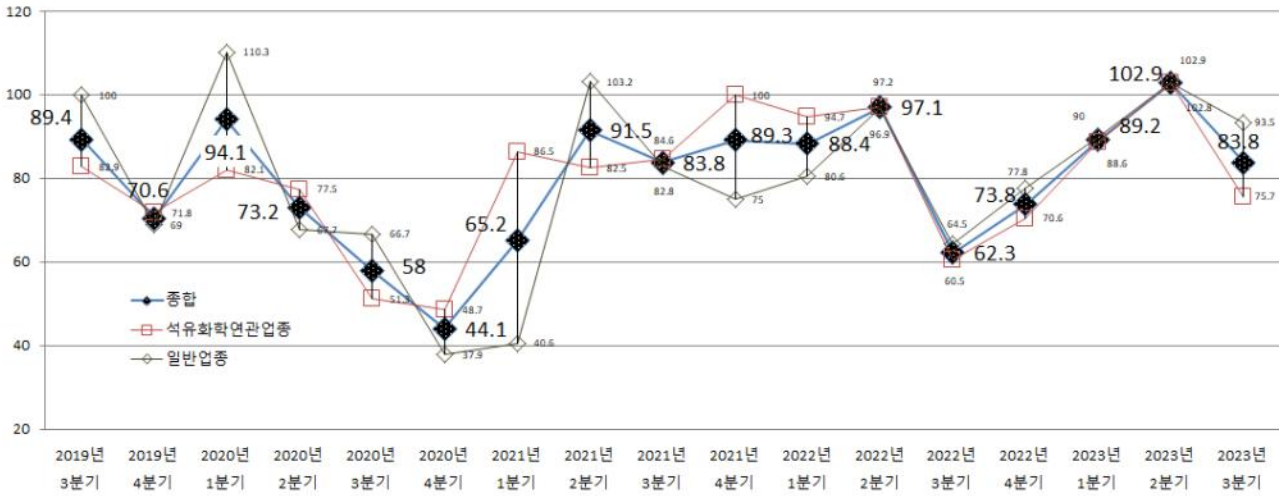


그림 BSI 추이 (2019년 3/4분기 ~ 2023년 3/4분기)

- ◆ 실내외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중국의 석유화학 설비투자에 따른 자금률 상승 등 석유화학산업의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2022년 3분기를 기점으로 상승추이에 있던 기업경기전망지수가 금번 분기 하락세로 전환되었음. (102.9 → 83.8)
- ◆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연관업종의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분기대비 27.1 하락, 일반제조 업종은 지난 분기대비 9.4 하락하면서 업종에 구분 없이 하락세를 보였으며, 특히 석유화학 연관업종을 중심으로 경기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분기 “긍정적” 수치를 나타냈던 경기전망지수가 “부정적” 수치로 전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음.
 - 석유화학 연관업종 : 102.8(23년 2/4분기)→75.7(23년 3/4분기), 27.1 **하락**
 - 일반제조 업종 : 102.9(23년 2/4분기)→93.5(23년 3/4분기), 9.4 **하락**
- ◆ 석유화학 연관업종의 경우,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내수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수요부진과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의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투자에 따른 자금률 상승으로 수출물량 감소, 공급 과잉 현상이 더욱 심화되

면서 재고량 증가, 수익성 악화 등 어려운 업황을 반영하며 지난 분기 대비 대폭 하락한 경기전망지수를 나타냈다고 분석하였고 (102.8 → 75.7)

- ◆ 일반제조 업종의 경우에는, 일상 회복 전환과 계절적 요인으로 대면소비가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국내외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지역주요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지난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경기전망지수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음.(102.9 → 93.5)
- ◆ 2023년도 3/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석유화학 연관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, 특히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경쟁국으로 포지션이 변화되면서 수요회복이 더욱 더딜 것이라는 전망과 탄소국경세 등 각종 규제강화에 따른 부담까지 가중되어 향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부가 제품·친환경 사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.

【경기전망조사 세부 항목 조사결과】

- ◆ 「귀사의 금년 상반기 실적(영업이익)이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」라는 질문에 “소폭 미달(10% 이내)(47.1%)” > “목표수준 달성(26.5%)” > “크게 미달(14.7%)” > “소폭 초과달성(11.8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귀사의 경영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내외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?」라는 질문에 “내수시장 경기(36.8%)” > “원자재가격(29.4%)” > “수출시장 경기(22.1%)” > “고환율 상황(5.9%)” > “고금리 상황(2.9%)” > “기타(2.9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귀사의 하반기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대내외 리스크는 무엇입니까?」라는 질문에는 “고물가·원자재가 지속(30.1%)” > “내수소비 둔화(19.5%)” > “수출부진 지속(19.5%)” > “고금리 상황지속(10.6%)” > “원부자재 수급

차질(8.1%)” > “고환율 상황지속(4.1%)” > “환경·안전 이슈(4.1%)” > “기타(2.4%)” > “노사갈등 문제(0.8%)” = “규제입법 등 정책이슈(0.8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
- ◆ 「코로나 사태 전·후를 비교했을 때 수출이 중단된 품목이 있습니까?」라는 질문에 “있다(8.6%)”, “없다(91.4%)”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코로나 사태 전·후를 비교했을 때 새롭게 수출하기 시작한 품목이 있습니까?」라는 질문에 “있다(17.1%)”, “없다(82.9%)”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코로나 사태 전·후를 비교했을 때 수출 물량이 증가 또는 감소한 품목이 있습니까?」라는 질문에 “변동없다(54.3%)” > “감소한 품목 있다(28.6%)” > “증가한 품목 있다(17.1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수출이 중단 또는 감소한 경우,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」의 질문에 “수출시장 판매 부진(42.9%)” > “가격면에서 경쟁사에 밀림(19.0%)” = “수출국 정부의 규제나 정책(19.0%)” > “수익성이 낮아 수출 중단·축소(9.5%)” = “기타(9.5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수출이 늘었거나 새롭게 시작된 경우,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?」의 질문에 “경쟁사보다 품질·기술면에서 우위(26.3%)” > “수출시장 수요 증가(21.1%)” > “경쟁사보다 가격면에서 우위(15.8%)” = “적극적인 해외 영업활동(15.8%)” > “새로운 수출제품 개발(10.5%)” = “기타(10.5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